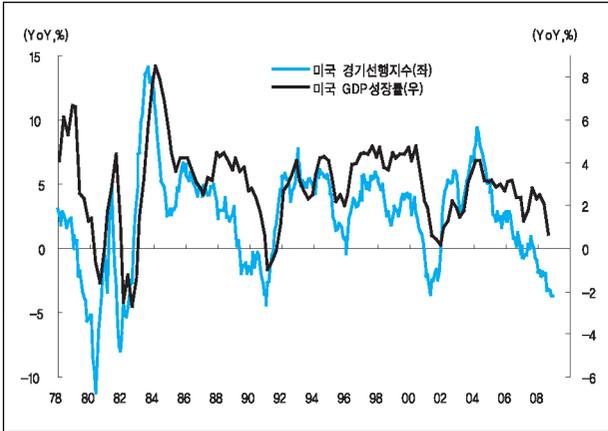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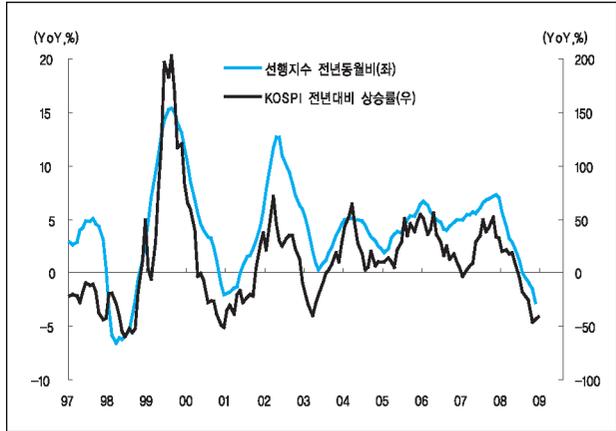


경기 흐름의 전환점과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미국 경기선행지수의 전년대비 상승률과 GDP성장률



한국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와 KOSPI상승률

이 지표를 왜 봐야 하나?

향후 경기의 방향 및 전환점을 포착하기 위한 경기종합지수(선행, 동행, 후행)의 하나. 선행지수는 일반적으로 경기후퇴기 이전에 하락하고 상승기 이전에 상승함. 최근 경기 회복 시기와 관련하여 지표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보드에서 매월 넷째주 발표. 전월대비 3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제가 침체에 빠질 신호라고 여겨지고 있음. '59년 발표 이래 '08년 포함 8번의 침체기를 예측. (3번 잘못 예측한 경우도 있음.)

미국 선행지수는 단기적으로 경제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들로 구성됨. 구성 지표는 1)장단기금리차, 2)통화량 증가율, 3)제조업 주간 노동시간, 4)신규수주, 5)S&P 주가지수, 6)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7)ISM 물품인도지수, 8)주택건축 허가건수, 9)소비자자기대지수, 10)비국방 자본재 수주의 10개 경제지표임.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에서 매월말 발표되는 산업활동동향 자료에서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를 발표하고 있음. 기계 및 건설 수주액, 소비자 기대지수, 주가, 장단기금리차 등 경기 순환에 앞서서 나타나는 10개의 구성지표로 종합되어 있음.

통계청에서는 동시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발표하는데 생산, 도소매판매 등 실제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8개 구성지표로 구성되는 동행지수임.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현재 경기가 확장국면임을 의미.

현재 지표의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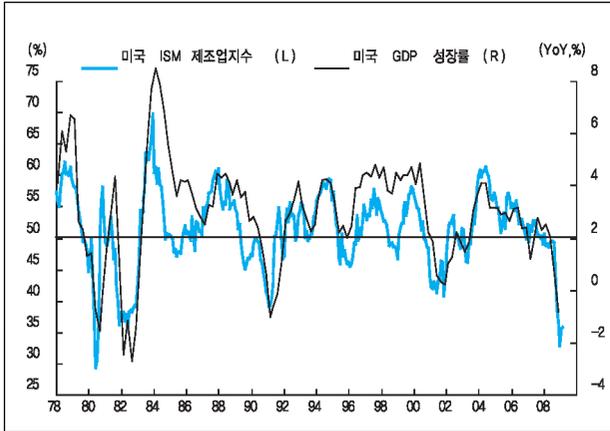
미국 경기선행지수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11월 기준으로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월대비 상승률도 최근 7개월 연속 정체 혹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당분간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

우리나라 선행지수 전년동월비의 경우 12개월 연속 하락하며 향후의 경기 악화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작년 7월 이후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하였는데, 이 같은 경우는 '98년 외환위기와 '01년 IT버블 붕괴 시기를 찾아볼 수 있음. 경기 악화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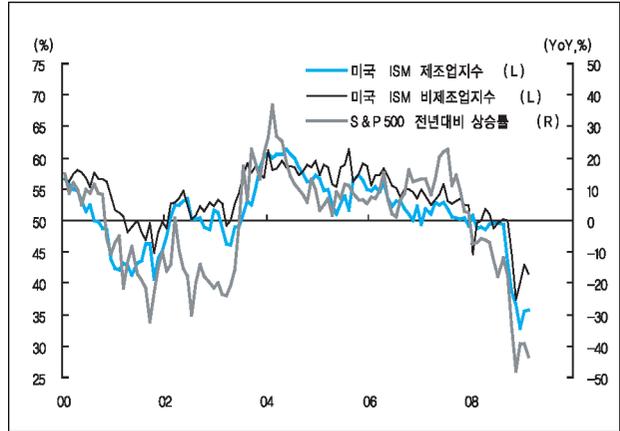
하반기 경기는 정책효과가 지속되며 상반기 대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선행지수의 하락세가 안정되거나 전환되는 시점에 주목해볼 필요 있음.

어디서 볼 수 있나? 컨퍼런스보드(www.conference-board.org), 통계청, 한국은행, Economic Flash

미국 제조업 생산활동에 대한 선행 정보를 제공



미국 ISM제조업지수와 GDP성장률



미국 ISM제조업지수와 S&P500

이 지표를 왜 봐야 하나?

미국 ISM제조업지수는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에서 미국내 20개 산업내 300개 제조업 체들의 제조업 경기에 대한 서베이(긍정, 불변, 부정) 결과를 지수화(%), 긍정응답 + 불변응답 * 0.5 / 전체응답)하여 발표.

다른 경제지표들에 비해 시의성 있게 미국 제조업 경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매월초 경제지표 중 가장 먼저 발표되어 향후 발표될 지표들의 분위기를 가늠해볼 수 있음. 예상치가 실적치와 다를 경우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

경제활동의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경기 순환의 전환점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며, 50이 넘을 경우 제조업 경기가 확장된다는 것을, 이하일 경우는 수축된다는 것을 의미. 역사적으로 41.1을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 (+)의 GDP성장률을 기록.

신규수주, 생산, 고용, 물품인도, 재고 등 10종류의 세부 지수가 발표. 통상 언급되는 ISM 제조업지수는 언급한 5가지 항목을 평균화한 종합지수임. 또한, 세부 항목 중 구매물가지수는 향후 인플레이 압력을 측정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

유사한 통계로 시카고 PMI(Purchasing Management Index)지수와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 등의 지역별 제조업 서베이 지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과 전경련에서 발표하는 BSI(Business Survey Index)지수가 있음.

또한,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에서는 97년부터 건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체를 대상으로한 ISM비제조업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ISM서비스업지수로도 불리우며 마찬가지로 50을 기준으로 비제조업 경기의 확장과 수축을 구분.

현재 지표의 움직임?

07년 평균 51.1, 08년 상반기 평균 49.3 수준에 머물던 ISM제조업지수는 금융위기 확산으로 실물경기 침체가 확대되면서 08년 9월 43.5로 6p가 급락한 이후 연말까지 급락세. 09년 연초 이후 급락세는 진정되었으나, 2월 현재 35.8로 역대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09년 1분기 생산활동도 08년 4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침체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

미국 경제는 금융기관 손실 처리 마무리와 재정지출 확대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09년 하반기 경제는 상반기 대비 미진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당분간 ISM제조업지수의 부진한 흐름이 예상되나 실물경제의 대표적인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바닥권 통과와 반등 시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 있음.

어디서 볼 수 있나? Daewoo Economic Flash 마켓체크포인트, 미 공급관리자협회(www.ism.ws)

자료제공 : 고유신 이코노미스트(대우증권㈜)